푸른 꿈을 키우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

| 가정통신문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 안내 | 교무실 535-2983<br>행정실 535-2973<br>http://kyoam.es.kr |
|---|---|---|

## 1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배경

▣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정상적 학교 수업 방해,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 방해

▣ **학교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
- 선행학습(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 수업
-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 2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의 폐해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모자라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았다고 판단하여 기본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됩니다.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에듀푸어 양산을 심화시키고 중산층 붕괴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5일

교 암 초 등 학 교 장